

# 전남도, 1만9천호 빈집 전국 첫 조사

### 지난해 8월부터 1월까지 6개월간 즉시 거주 가능한 1등급 2110호 소유주 철거·활용 등의 2835호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비 등 제안

전남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빈집 1만9727호에 대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등급별·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빈집 정비 등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방치된 빈집이 주거 환경과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월간 '빈집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를 했다. 성과감사는 시·군 건축부서, 읍면동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22개 시·군 모든 빈집의 실태를 살피고 빈집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시·도의 빈집 정비·활용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해 검증도 받았다.

특히 빈집 수 중심의 실태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유형별(철거형·활용형), 등급별(1~4등급), 빈집 소유자의 동의 유무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빈집 실태를 파악, 향후 효과적인 빈집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2021년 12월 말 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총 1만9727호였다. 이 가운데 철거형은 1만 1003호(55.8%), 활용형은 8724호(44.2%)였다. 빈집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등급을 분류한 결과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2110호(10.7%), 주택 상태가 양호한 2등급은 5112호(25.9%), 상태가 불량한 3등급은 5925호(30%), 매우 불량한 4등급은 6478호(32.9%), 기타 102호(0.5%)로 집계됐다. 3~4등급이 전체의 63%를 차지해 도내 빈집의 불량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빈집 소유자가 철거와 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2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해 소유자의 철거·활용 부동의가 큰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또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구조 빈집이 9032호나 방치돼 있어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의 빈집정책을 분석한 결과 ▲빈집정비계획 미수립 및 빈집조례 정비 노력 부족 ▲형식

적인 빈집실태조사 실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노력 미흡 ▲빈집 활용방안 모색 소홀 ▲슬레이트 구조 빈집 정비에 소극적 대처 ▲빈집정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 빈집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정비 인프라 확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 빈집플랫폼(빈집은행) 구축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 활용 유도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빈집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주거·복지·문화·경제·일자리·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해있다"며 "빈집 발생률은 지역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그 급속한 증가는 지역소멸의 징후인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빈집을 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올해부터 집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글로벌 웰니스 관광지 10곳 선정 육성

### 자연·미식 치유 등 4개 분야 공모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힐링, 건강에 대한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전남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 10곳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심신 치유를 목적으로 한 해양스파, 건강음식, 숲 명상 등 웰니스 관광지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남도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의 첫 단계로 청정 전남의 특색을 반영한 웰니스 관광지 10곳을 공모로 선정해 전문 여행사와 공동으로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 기간은 4월 22일까지로, 자연 치유, 미식 치유, 한방 및 스파 치유, 명상 및 요가 치유 등 4가지 분야다. 참여를 바라는 시설은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는 적합성, 프로그램 운영 노력 및 이용 실적, 발전 가능성 등을 고루 평가해 전문가 심사로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 전남권환경정질환경관리센터, 국립장성숲체원 등 5개소가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한 10개소와 한국관광공사 선정 웰니스 관광지 5개소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웰니스 관광상품화, 홍보 등을 지원해 전남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상품으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삼해양, 숲, 남도 음식 등 웰니스 자원이 풍부하다"며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해 특색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웰니스 관광지 10선을 시작으로 웰니스 관광지를 계속 발굴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본격 추진

### 2000개 마을 공동체 정신 회복

전남도는 마을 청정자원을 관리·보존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해 주민 화합을 이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1000개 마을에 신규로 선정된 1000개 마을을 더해 모두 2000개의 으뜸마을에서 주민주도로 이뤄진다.

주민과의 소통과 공동체 정신 회복을 목표로 허름한 마을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쓰레기가 방치된 땅에 꽃밭을 조성하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주민이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으뜸마을을 가꾼다. 또 주민, 유관기관, 자생단체 등이 하나가 돼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마을 박물관&미술관 조성을 통해 마을의 자랑거리를 알리며, 마을 사진첩 제작으로 마을을 기억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시작한 으뜸마을도 올해 계속 추진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5월부터 현장평가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종합평가를 실시, 6개 우수 시·군 및 50개 으뜸마을을 선정해 12월 시상과 함께 성과나눔대회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마을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도민의 생활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올해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를 지속해서 추진, 마을의 작은 변화가 전남의 큰 변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00개 으뜸마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당 매년 300만원씩 3년간 총 900만원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270억원이다. 앞으로 전문가와 마을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고,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해 8000개 마을로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규 입주기업 모집

### 문화콘텐츠 초기 창업기업 5개사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다음달 13일까지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신규 입주기업 모집규모는 총 5개사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남 도내 문화콘텐츠분야 예비 창업기업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기술력 및 개발능력, 성장성, 센터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업은 나주 소재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공간을 비롯한 회의실, 교육장 등의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네트워크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자금지원, 창업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4월 1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tjy@jcia.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는 지난해 신규창업 3개사, 기업 유치 1개사, 신규고용 13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목표의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도 다음달 11일까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19개 기관·단체와 협약

재단법인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5일 전남도내 19개 청소년 기관 및 단체와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들 지원 기관 및 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부문 6개소(총 750만원), 청소년지도자 동아리 부문에 6개소(총 400만원), 봉사활동 부문에 7개소(총 490만원)를 선정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지원한다. 향후 재단은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금이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검토, 우수사례를 발굴해 결과보고회를 열고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중 장시성·상하이, 온라인 무역 상담회

### 수출기업·바이어간 72만 달러 상담

전남도가 라-우크라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 중국 우호교류지역인 장시성, 상하이시와 72만2000달러 규모의 온라인 경제무역 상담회를 열어 경제무역역을 촉진하고 우호 증진을 꾀했다.

이번 온라인 경제무역 상담회는 2020년 12월 전남도-장시성 간 온라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통상 분야 협력사업에 따라 이뤄졌다. 장시성은 전남도와 2004년 우호교류를 시작, 2012년

자매결연을 한 지역이다. 이번 행사는 특히 장시성과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첫 행사다.

전남도의 수출제품 설명회에 이어 장시성 바이어 30여 명을 대상으로 15개 사의 장류, 건강기능식품, 곡류 가공식품, 전복 가공식품, 화장품 등 20여 제품을 소개했다. 또 전남 수출기업 15개 사와 장시성 바이어 17개 사가 참가한 1대1 매칭 제품 상담회를 온라인 화상상담 형태로 진행했다. 중국 현지 바이어에게 수출제품 설명 자료를 사전에 송부하고 상담을 원하는 도내 수출기업을 매칭

했다. 전남도는 또 상하이시와도 무역상담회를 열어 상하이시 바이어 13개 사와 제품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두 지역의 상담액은 총 72만2000달러 규모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번 경제무역상담회에 참여한 중국 현지 바이어와 수출기업과의 사후 관리를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자매우호지역 중 한 곳인 산시성과 5월 제2차 온라인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7월 초에는 정두, 푸젠성 지역에 제3차 중국 비대면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